

□ 벤처란 무엇인가

미래 사회의 필수조건 벤처 마인드

진용욱
(전파공학과 교수)

우리 사회는 지금 벤처기업이나 소기업 창업의 열기가 가득하다. 직장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은 물론이고, 새로이 취업을 한 사람일지라도 한 번쯤 이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육성책을 내놓고 창업을 유도하는 듯이 보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면 열기만 가득할 뿐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스탠포드 대학의 휴렛과 패커드 교수는 미 국방부의 산하집중 과제를 수행하다가 마이크로 컴퓨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기업에 몰두하게 된다. 이들의 선구적 업적은 산업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실리콘 밸리의 호사를 이룩하는 계기가 된다.

한편 우리 시대 최고의 부자란 소리를 듣는 빌게이츠는 허버드를 떠나가 다른 사람이 먼저 창업할까 봐 다녔던 학교를 집어치우고 사업에 몰두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왕국을 건설하였다.

반면 제조업의 왕국이라는 일본은 세계적 상품은 있지만 이들이 모험으로 성공했다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그 항상 2등으로 출발해서 조금씩의 개량을 거듭하고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여 드디어 결승점에서는 정상을 탈환한다는 일본주식회사의 전략의 소산이 대부분이다. 일본의 조선업,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것이 일본의 실체다. 그러나 그렇게 막강하던 일본경제도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리고 벤처기업과의 상관성은 없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은 지금으로선 없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동양적인 혈연적 공동체보다는 서양의 계약적 사회 그리고 일본식 집체주의보다는 미국식 개인주의가 보다 적합한 기업활동 패턴이 아닌가 하는 점에선 어떤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래 모험이란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성공보다 실패의 위험성이 더 많기 때문에 성공 후의 기대값도 크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착성보다는 이동성이 큰 집단에서 벤처의 발생과 성공의 확률이 높은

▲ 벤처마인드는 정보사회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인간의 필수조건이다.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는 일본보다 개인주의와 이동성에서 훨씬 강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막강한 한글이 존재하여 이동성에서 부족한 기록성을 보장해주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일본을 앞지를 태세가 되어 있으며, 이 또한 벤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빈약한 의지로 일관하는 한
취업도 보장받지 못하고
설사 취업이 되더라도
정리대상 1호임에 분명할 것이다

사실 모험기업과 창업은 별도의 개념이다.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나 자본이 없는 경우 모험투자가 나서서 천사처럼 돈을 빌려주는 반쪽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다. 모험 사업자와 엔젤투자가 의기투합

했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사업이 모험사업이다. 그러나 창업은 조금 다르다. 누구든 자본과 기술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험기업과 소기업 창업은 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험기업이란 단순창업이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력이다. 예컨대 투자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아이디어를 보면 대부분 생산이 어려운 과제이거나 판매가 될 것 같지 않은 요소가 많다. 소비자의 심리를 꿰뚫기보다는 자기 도취의 성과물이 많고, 생산 계획이나 자금조달이 있다해도 제일 중요한 판매계획이 서 있지 않은 경우가 99%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계층을 공략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판매는 마음이다. 소비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기술 성취력만 달성하

는 것은 자기만족을 위한 뿐 창업에 성공하진 못한다.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크다.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의 제1호 발명품은 국회의 자동투표기였다. 그러나 야당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주요 투쟁 방법인데 자동투표기가 설치된다면 투쟁수단의 하나를 잃어버리는 격이 된다. 당연히 채택되지 못할 것이고 에디슨의 1호 발명품은 보기 좋게 실패한 것이다.

또 있다. 이번 학기에 한 강좌를 창업보고서 쓰는 것으로 대체하겠다고 첫 시간에 선언했더니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3분의 2의 학생이 떨어졌다. 취업준비를 해야하는데 시간을 많이 빼앗길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빈약한 의지로 일관하는 한 취업도 보장받지 못하고 설사 취업이 되더라도 정리대상 1호임에 분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도 창업성 취업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취업에서 창업으로 변하지 않는 한 기업이란 개인이든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있는 것이다.

□ 창업을 향해 뛰는 경희사자들

벤처 동아리는 이 시대의 새로운 학생상

전국 29개 대학이 모여서 만든 KVC(Korea student Venture Center)는 벤처 창업동아리이다. 이러한 동아리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쓰러지는 기업만큼이나 새로 일어나는 기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모였다. 그렇다면 우리학교에는 어떤 벤처 창업 동아리가 있을까. 현재 문리대 국문과는 인문과학분야의 벤처 창업 동아리를 준비중에 있다. 국문학과에서는 벤처가 기술공학분야에서만 가능하다는 통념을 깨고 인문영역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국문과 창업동아리는 산학적으로 흠어져 있는 졸업생을 재학생과 연계시켜 졸업생은 창업팀으로 재학생은 지원팀으로 하여 만화, 게임 스토리 및 영화 시나리오 구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96년 10월 공대 대학원 세미나 발단으로 97년 2월 정식 발족한 '경희창업연구회'는 사회대 지하 1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대학원생 및 학부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장 정동수(기술경영학과 석사 37)군은 '벤처'의 근본은 대학내의 벤처 동아리이며 벤처 동아리는 이 시대의 새로운 학생상이라고 말한다. 벤처의 특성은 High risk, High return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창업 과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창업 동아리에 대해 학생들은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템이 공개되었을 때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금물이다. 아이템의 공유는 더 나은 아이템의 가공을 가져온다. 또한 벤처기업의 창업을 자칫 한탕주의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벤처는 창의, 창조적인 행위이며 기존의 틀에 굴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며 그 과정 속에서 합리성을 얻는다.

벤처기업의 창업은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이므로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정군은 '창업 준비를 같이 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려는 학생은 창업연구회를 찾아 줄 것을 당부하며, 경제 또는 경영이나 벤처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원생 및 학부생은 제 2공학부나 경영학부 사무실로 연락하라'고 말한다. <지은정 기자>

□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프로정신 가진 아마추어의 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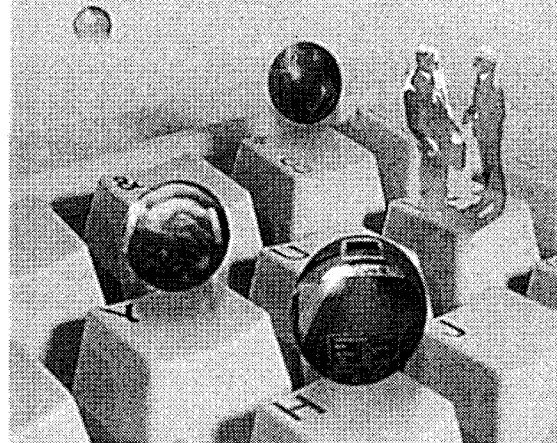
대학이 취업을 하기 위한 학원으로 변했다고 한다. 대학이 그저 취업을 위한 간판으로서의 역할, 학생들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취업을 위한 일률적 상식이나 영어 공부에만 전념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한 말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현실을 타개할 방법은 없는가? 우리학교부설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소장: 진용욱교수), 이 기관은 우리학교 학생, 교수 등 예비 창업자나 초기창업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시설공간, 통신망과 전산설비, 각종 연구 개발장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연구한 기술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가 취업을 위한 학원이 아닌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전초기로서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는 정보통신부의 '97년도 대학내 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고려대, 서울대, 숭실대, 한양대 등 5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지난 1월1일 설립된 이래 현재 입주할 창업회사를 모집(4월 10일까지)하고 있는 지원센터는 공대 3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4월 중순 내부 시설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멀티미디어 교육관이 완공되면 이전할 계획이다.

현재 채옥삼 교수는 '응용시스템개발도구', 황주호 교수는 '방사선을 이용한 수분함량 밀도측정' 기술을 가지고 창업지원센터 입주를 신청한 상태이다. 이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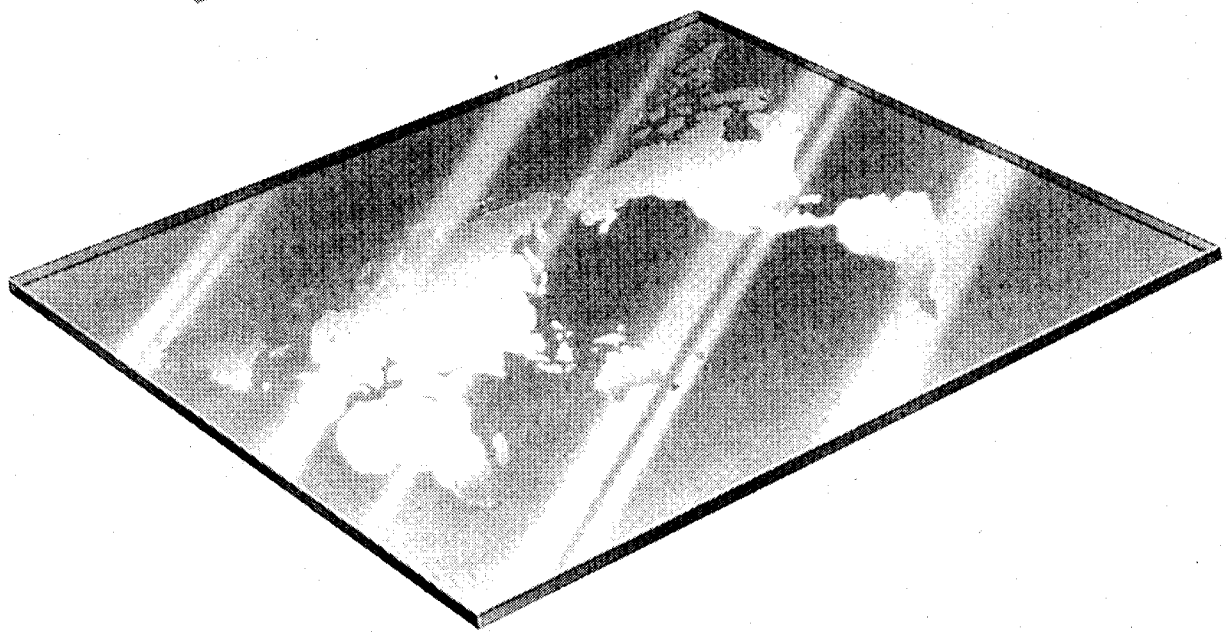


창업관련 제반시설뿐만 아니라 기술의 상품화를 위한 지원을 희망했다. 이에 대하여 진용욱 소장은 "벤처 창업은 연구기술을 상품화시켜야 한다"며 "그 실천의 일환으로 텔레마케팅이라는 첨단 마케팅 기법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소장은 "이 기관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술과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의욕적이며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겐만 문을 열어주겠다"며 적극적이며 능동적 사고를 당부했다. 열린 사고와 훌륭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경희인들이 창업지원센터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류지은 기자>

HANGLAS



세계 10대 유리메이커, 한국유리 - 40년 외길의 결실입니다.

불모지였던 국내 유리산업의
용광로에 불을 지핀 이래,
오로지 유리에만 전념해 온
40년 외길.
이제, 그 결실로 한국유리는
우리나라 유리산업 대표하며,
세계 10대 유리종합메이커로
성장하였습니다.

더 좋은 유리를 통해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이롭게 —

HANGLAS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한국유리가 만듭니다

판유리 · 관유리 · 유리섬유 · 유리장섬유 · 결정화유리 · 건축용안전유리 · 자동차안전유리 · 경질유리 · 실린트